

임플란트 비용 부담되면 틀니로 미소 찾으세요

건강 바로 알기 틀니

식사 후 세척·정기검진 필요
취침 때 분리...휴식시간 줘야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혜택

도움말 = 조선대치과병원 허유리 교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점점 100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치아의 중요성은 더 커져가고 있다. 음식을 씹는 저작기능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자연치아를 100세까지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 현재 치의학의 발달로 임플란트를 통해 자연 치아와 유사하게 회복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신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 잇몸

뼈 소실이 심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뼈가 부족한 환자들은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틀니로 환자의 저작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아 줄 수 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틀니에는 본인의 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아가 없는 부분을 회복해 주는 부분틀니와 본인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작하는 완전틀니가 있다.

부분 틀니는 남아 있는 치아가 틀니를 걸기에 충분히 건강한 경우에 제작할 수 있다. 부분 틀니의 경우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 틀니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완전 틀니보다 사용시에 유지력이 더 좋고 저작력도 더 우수하다. 틀니 고리를 치아에 걸기 위해서는 치아에 틀니를 걸 수 있는 형태의 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치아의 형태가 건전하다면 자연치아 상태에 서 홈을 형성할 수도 있고, 치아가 마모되었거나 우식이 있다면 완전히 씌우는 크라운을 먼저 제작하고 틀니를 만들 수도 있다.

완전 틀니의 경우에는 틀니를 걸 수 있는 치아가 없고, 잇몸에 올려져 있는 형태

로 부분 틀니보다 틀니의 움직임이 심하지만, 저작 능력과 심미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틀니의 필요성과 관리=부분 틀니와 완전틀니를 장착함으로써 저작능력이 향상되어 건강이 좋아지고, 치아가 생기게 되므로 자신있게 웃을 수 있어 사회 생활도 더 즐거워질 수 있다.

틀니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식사를 하고 항상 닦아주어야 하며, 밤에 잘 때는 틀니를 빼서 잇몸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잇몸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기 때문에 틀니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틀니를 점검받아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현재 만 65세 이상부터 보험으로 부분 틀니, 완전 틀니 치료가 가능하다.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틀니를 통해 저작과 심미를 향상해 줄 수 있으며,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는 치과에 빨리 내원해 최대한 자연치아를 보존해 틀니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틀니를 제작한 후에는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허유리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교수가 치아가 거의 없는 환자에게 틀니 시술을 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유전자 전달로 심장치료” 안영근 교수팀 논문 발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사진) 교수와 서울대 공대 김병수 교수 연구팀은 ‘심장조직의 대식세포에 항염증성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전달해 심장조직과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논문은 ‘그래핀 복합체를 이용한 염색체와 대식세포 조작을 통한 심근 손상 억제’(공동 1저자 서울대 한진 박사·전남대병원 김용숙 연구교수)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학술지 ‘ACS Nano’에 게재됐다.

심근경색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 산소와 혈액이 심장으로 공급되지 못해 혈액 펌프기능이 멈추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심근경색에 의해 심장조직은 급격히 손상되고, 심장조직에 염증이 발생해 대식세포가 유입된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염색체 대식세포를 심장치료의 표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Interleukin-4’라는 항염증성 유전자를 대식세포에 특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그래핀을 변형시켜 유전자를 전달하는 MGC(Macrophage-polarizing Graphene Oxide Complex)를 합성했다. 결국 MGC/IL-4 복합체 이식에 의해 심장 기능 회복 등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갖게 됐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안전한 그래핀을 활용해 심장조직내 대식세포의 표현형을 제어함으로써 심장조직의 보호와 심기능 회복을 입증했다.

안영근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치료목적 유전자 또는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해 조직기능을 보호하고 나아가 조직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심평원 광주지원, 청구진료비 맞춤 상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윤순희)은 지난 23일 광주지원 대회의실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련 상담을 신청한 병·의원 중 39개소를 대상으로 청구진료비 주요지표 등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사진〉 ‘지표연동자율개선제’란 의료의 질, 진료비, 환자 안전에 영향을 큰 분야에 대해 관련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행사의 주요내용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방안 및 관리지표 ▲의료기관별 진료비 청구 현황 ▲급여기준 변경내용 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

표연동자율개선제’ 관련한 운영항목 및 관리지표를 설명하고, 의료기관별 관리지표에 따른 진료비 청구경향 등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자율적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상호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원은 이번 상담을 시작으로 오는 28일에 목포, 4월은 순천 등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중심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광주·전남 의사회 등 보험이사로 구성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상호협력 을 모색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치과병원은 지난 23일 임플란트센터 개소식을 갖고 치료에 돌입했다. <전남대치과병원 제공>

진료시간 단축... 전남대 ‘임플란트센터’ 개소

전남대치과병원(병원장 박홍주)이 지난 23일 임플란트센터(센터장 국민석) 개소식을 갖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플란트 치료에 돌입했다.

이날 병원 1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삼용 전남대병원장·박홍주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센터의 탄생을 축하했다.

임플란트센터는 보철과·치주과·구강악안면외과 등 관련 진료과의 원활한 협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서 임플란트 통합 전문 진료를 펼치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 여러 과를 옮겨 다니며 받았던 임플란트 치료를 한 진료실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과를 다니며 겪었던 환자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고, 진료대기시

간도 대폭 단축시키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임플란트센터에는 5개의 수술실과 4개의 진료실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최근 임플란트 환자 증가에 따른 적체현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강내 스캐너, 임플란트 계획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등을 도입중이며,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첨단 장비는 보통 3~6개월 소요되는 임플란트 치료시기를 앞당겨 완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플란트센터에서의 진료는 먼저 첫 진료의 경우 초진 및 진단 전달 교수의 진단을 거쳐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

라 CT 촬영 및 수술준비를 갖추고서 일정을 조율해 수술전담교수가 수술을 진행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수술이 마무리되면 이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시행한다. 현재 전남대치과병원에는 임플란트 식립, 보철물 제작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장비와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치과병원 외의 타 병원에서 시술된 임플란트에 대한 치료 및 처치를 위해 1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던 온 환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홍주 병원장은 “이번 임플란트센터 개소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남대치과병원은 지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수준 높은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견과류 실제 열량 더 적다

견과류는 알려진 열량보다 실제 체내에서 흡수·사용되는 칼로리는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소(ARS)의 생리학자 데이비드 베어 박사 연구팀이 견과류 중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가 지니고 있는 칼로리와 실제로 체내에서 흡수되는 칼로리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3가지 견과류가 체내에서 흡수, 사용되는 열량은 라벨에 표시된 칼로리보다 5~3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어 박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옥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